

칼럼



장기채 주필

### 노인 사회 삶,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데 115년이 걸렸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독일은 각각 40년과 37년, 미국은 73년과 21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6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경과됐다. 한국은 고령사회 18년, 또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겨우 8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유독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경제 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

문이다.

한국의 노령화 현상은 한마디로 '압축적 고령화'라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만큼 문제점들이 응축돼 있는데도 국가적 사회적 대비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접 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뱅이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 절반가량(48.1%)은 빈곤 층이다.

그런데다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류 사회는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사회의 도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권 노인인구는 5,76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 2,29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7.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 부양은 당

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 57.2명, 2060년에는 8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한국의 노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들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가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영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각종 사회 보험 운영에 구멍이 생긴다.

돈을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가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이든 연금이든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사회 진행은 젊은이들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66조 5637억 원을 쏟아 부었다.

출산율을 높여서 고령화를 저지하기란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처럼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더 치밀하고 배려 깊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 자동차 회사 BMW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BMW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무릎 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나무 바닥재를 깔고, 조명을 더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79여 개 조치를 취했다.

비용은 5만 달러, 5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결근율이 크게 줄어 들고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다.

BMW는 역시 인류 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혁신인 셈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대, 겨울철 건강관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에 걸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할 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춥고 건조한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1. 1-2시간마다 실내공기를 환기시키자.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면 밀폐된 공간에 각종 미

세먼지와 오염물질,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적어도 1-2시간마다 공기를 환기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자.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이 때 건조함은 우리 몸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인 코 점막

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하여 바이러스나 오염 물질을 방어하는 힘을 떨어뜨리게 되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5리터 이상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외출 후 손을 씻자.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 중 가장 첫 번째는 호흡기 감염에 걸린 사람의 손에서 책상이나 문의 손잡이 등에 옮겨져 있다가 그걸 만진 사람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 손에 의해 다시 코나 입

의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철 폐건강을 위해 외출하고 돌아와서 혹은 틈틈이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하는 건강관리를 실천하여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지민/화순소방서 동북119안전센터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강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